

오케스트라로 들려주는 '춘향가'

한국 최고의 고전적 러브스토리 '춘향가'가 세계로 나아가기 위해 오케스트라와 만난다.

아리랑심포니오케스트라(단장 전세일)가 오늘 저녁 7시 30분 전주우진문화공간에서 K-관소리를 세계로 라는 기치 아래 관소리 춘향가를 오케스트라 무대에 올린다.

공연에서는 판소리 춘향가의 주요 대목을 서양의 오케스트라 곡으로 편곡해 동서양 문화를 융합시키고 서로 같고 또 다른 음악으로 핑퐁처럼 감정을 주고 받는다.

춘향전의 전체 분위기를 표현하는 서곡과 춘향과 이몽룡이 운명적으로 만나 맺는 백년의 가약, 잠시 이별한 뒤 신임 사또의 수치를 거절하는 춘향의 지조, 장원급제해 금의환향한 이몽룡과의 극적인 상봉 등 언어유희가 뛰어난 춘향전의 말 속에 숨어있는 리듬감을 음악적으로 재해석해 수준 높은 예술성으로 표현한다. 언어유희가 뛰어난 춘향전의 말 속에 숨어 있는 리듬감을 음악적으로 재해석해 보여주는 예술성 높은 무대가 이날의 관전 포인트다.

강민석 음악감독이 지휘하고, 춘향에는 김민영 전주사립국악단 판소리 수석과 뮤지컬



강민석



김민영



강길원



박예소

아리랑심포니오케스트라 오늘 우진문화공간서 무대

배우 박예소씨가, 이몽룡에는 강길원 국립남도국악원 단원이 나선다.

아리랑심포니오케스트라는 k-컬처가 전세계적으로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 요즘, 서양의 로미오와 줄리엣에 버금가는 한국 최고의 고전적 러브스토리 판소리 '춘향가'에 오케스트라를 접목해 K-관소리의 세계진출을 이끌고 있다.

클래식을 비롯한 서양의 모든 장르의 음악은 물론 한민족의 얼을 간직한 아리랑과 민요 그리고 동심의 주역이 서린 정감 있

는 동요 등의 음악을 서양오케스트라와 우리 전통악기를 서로 융합시켜 표현해 공감의 하모니로 한민족의 전통음악의 세계화와 인류 평화를 위한 공연을 기획하는 연주단체다.

모차르트, 베토벤, 브람스, 차이콥스키 등 다양한 서양 고전과 프로코피에프 피터와 늑대, 생상스 동물의 사육제 등 그림자 공연 한민족의 아리랑을 주제로 한 대규모 아리랑 공연 등 다양한 힐링 문화 콘텐츠를 가지고 있다.

앞선 공연에서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곡 1위에 선정된 아리랑을 서양의 오케스트라와 우리나라 고전 무용을 접목시켜 연출하는 등 청각적 아름다움을 넘어 시각적 아름다움을 표현해 갈채를 받았다.

또한 가이급, 아쟁, 대금 등 한국의 대표적 인 전통 악기 선율에 아리랑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드라마틱한 사운드를 더하고 특히 민족 전통의 관소리의 세계화를 목표로 서양의 오케스트라와의 협연을 기획하는 등 참신한 시도를 하고 있다.

아리랑심포니오케스트라 관계자는 "아리랑심포니의 활동 가치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 목록에 등재된 아리랑과 관소리의 세계화라며, "일반적으로 고수 1인의 장단에 이루어 졌던 관소리를 서양 오케스트라와 국악기를 가미한 새로운 버전으로 편곡해 특색 있는 사운드로 재탄생시켜 세계인에게 친근하게 다가가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은성 기자



전주교육대 도서관 어린이도서 30선 전시회

제2도서관 대출실 로비서 22일까지

전주교육대학교 도서관은 도서관 이용 활성화 및 도서분위기 고취를 목적으로 12일~22일까지 제2도서관 대출실 로비에서 '최다 대출 어린이도서 30선 전시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회는 어린이가 스스로 책을 선택하는 과정을 통해 책을 읽으려는 의욕을 향상시키고, 어린이들에게 즐거운 독서 경험을 제공해 도서관을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흥미를 유발하기 위함이다.

선정된 30선 도서는 1월 1일~9월 30일까지 최다 대출된 어린이 도서로써 '잘못 뽑은 반장', '피노키오에게도 인권이 있을까', '엄마의 선물' 등 다양하다.

김우영 총장은 "작은 행사지만 호응이 높아 보람을 느낀다"며 "예산을 확보해 도서관 신축이 예정돼 있는 만큼 앞으로도 도서관 프로그램 개발 및 활성화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무왕께서 납시오' ... 익산시, 한복문화주간 퍼레이드 개최

우리 고유 복식문화 우수성 홍보 계기

익산시(시장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보존지구 기록사지석탑 일대에서 (사)마한백제문화예술제작위원회(위원장 이해석)의 주관으로 궁중복식 왕족의 신분을 최고로 상징해 줄 수 있는 복식으로 한복 퍼레이드를 지난 18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무왕행차의 가장 화려하고 위엄 있는 백제의 궁중복식을 보여줌과 더불어, 직접 입어볼 수 있는 체험을 함께해 한국 고유 복식 문화의 아름다움과 우수성을 널리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또한, 유튜브로 실황을 중계하며, 국내 및 해외에 마한백제시대 한국의 고유문화 궁중복식의 아름다움을 널리 홍보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특히, 이날 마한백제 시대의 동선을 구성해 방문한 관광객과 일대의 시민들에게 보다 편리한 관람을 제공했다.

아울러, 한복과 함께하는 무왕행차 퍼레이드와 성대한 퍼포먼스를 기획, 출연진의 퍼레이드



마한백제시절 일대에서 열린 한복 퍼레이드

(사진=익산시청 제공)

드 팀과 취타대의 합동 행진으로 마한백제시절 일대에서 특별 설치무대로 행렬하며, 대중성 있고 즐길 수 있는 현대적인 프로그램으로 구성, 연출됐다.

또한, 한복문화행사 기획은 한국 복식이 한국인의 민족의상으로서 갖고 있는 민족의 정체

성과 전통성을 이어나가기 위한 문화적 행사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으며, 한복의 우월성과 다양성을 시민들과 세계인들에게 조명하는 계기를 마련, 범국민적 참여와 한복문화의 축제를 통해 한복문화의 세계화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유호상 기자

잼버리 성공 기원... '유튜브 뮤직페스티벌'

순창고 '립업', 대상 수상

전북도가 2023 새만금 제2회 세계스카우트 잼버리(이하 세계잼버리)의 성공개회를 기원하기 위해 지난 18일 2021 대한민국 청소년 유튜브 뮤직페스티벌(이하 뮤직페스티벌)을 개최했다.

지난 2018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는 뮤직페스티벌을 코로나19 상황때문에 올해는 무관중으로 개최했으며, 유튜브 통해 실시간 생중계로 진행됐다.

이날 뮤직페스티벌에는 밴드, 댄스, 보컬 3개 분야에 68개의 신청팀 중, 지난 7~8월 온라인 예선을 통해 5:1의 경쟁률을 뚫고 선발된 12개 팀의 청소년들이 본선 경연을 통해 끼와 재능을 마음껏 펼쳤다.

참가자들은 프로 못지 않은 실력으로 유튜브 시청자들의 감탄을 자아냈으며, 심사위원들도 대상팀 선정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후문이다.



대상을 수상한 순창고 '립업'

본선에 진출한 모든 참가자들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으며, 대상의 주인공은 댄스분야의 립업(순창고)이 됐다.

립업은 "평소 꿈을 키우기 위해 같이 댄스 실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어 좋았고, 대상을 수상하게 돼 매우 기쁘다"며 "앞으로 2023년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홍보에도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고고학으로 본 아막성의 가치 조명

남원시, 사적지정 위한 학술대회... '신라시대 산성 특징 모두 지녀'

남원시는 지난 15일 아막성 사적지정을 위한 학술대회가 성황리에 종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는 '문헌과 고고학으로 본 남원 아막성의 가치와 의미'라는 주제로 대면과 비대면을 동시에 진행하며, 현장 참가자는 관계 전문가 등 30명으로 제한하고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로 진행됐다.

주제발표 첫 번째자로 나선 이도화 교수(한국전통문화대학교)는 백제와 신라의 경계에 위치하고 있는 아막성의 중요성을 문헌사적 검토를 통해 산성의 역사적 의의를 밝혔다.

두 번째 발제자인 심광주 관장(한국토지주택연구원)은 다른 지역의 산성과 아막성의 비교 분석을 통해 아막성 축성기법에 대해 면밀한 분석을 시도했다.

특히, 심 관장은 "아막성은 신라시대 산성의 특징을 모두 지니고 있으며, 당시의 성벽을 쌓기 위한 토목 기술을 한 눈에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유적임을 강조하며, 그 의미를 지켜 갈 수 있는 방향으로 문화재 지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성원(부경대학교 박물관)의 '출토유물을 통해 본 아막성의 운영사', 고은별(서



울대학교)의 '아막성 출토 동물유존체의 양상과 그 의미', 신성필(공주대학교)의 '남원 아막성 출토 철 보관 용기의 윗면 분석과 그 의미', 마지막으로 조병일(군산대학교 가야문화연구소)의 '아막성 보존 및 활용방안'에 대한 주제발표가 이어지며 아막성에 대한 의미 있는 담론들이 펼쳐졌다.

박승용 남원시 문화예술과장은 "이번 학술대회가 남원 아막성 사적지정 가치를 확인하는 자리였으며, 유적의 체계적인 보존관리를 위해 국가사적 지정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국립민속국악원

27일 '국악콘서트 다담'

국립민속국악원(원장 왕기석)은 남원시립김병중미술관에서 차와 이야기가 있는 국악콘서트 '다담'을 오는 27일 오후 2시 개최한다.

이번 공연은 국립박물관문화재단 김용삼 사장이 이야기 손님으로 출연해 '신한류 열풍, K-문화콘텐츠의 힘'을 주제로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준다.

1993년 대전 엑스포과학공원 전통예술공연장인 놀이마당을 운영하며 전통예술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와 더불어 신한류 문화콘텐츠 확산의 일등 공신인 방탄소년단(BTS)의 K-팝 열풍 등 세계 시장을 사로잡은 K-문화콘텐츠의 저력에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를 들려준다.

우리음악 즐기는 해금 연주자 이동훈(전북대 교수)이 출연해 해금북주곡 '비'와 경기소리와 함께 선보이는 경기민요 연곡 등 전통음악의 아름다움을 오롯이 느낄 수 있는 연주를 선보인다.

관람은 사전 예약제(선착순 60명)로 진행하며, 예약은 전화(063-620-2329)나 '국립민속국악원' 카카오톡 채널로 가능하다.

/남원=김기두 기자

감염병 의심되면 '1339'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기업 은혜상사(주)



대표전화 063)227-4610

NAVER 은혜상사(주) - Q

팩스번호 063)227-4619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903, 1층